

# 황선우 '올해의 아시아 남자 선수'

## 미국 수영 전문 매체 선정

롱코스(50m)와 쇼트코스(25m)를 가리지 않고 한국 수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황선우(19·강원도청)가 미국 수영 전문 매체로부터 올해 최우수 아시아 남자 수영 선수로 인정받았다.

수영 관련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의 스윙스왐(SwimSwam)은 28일(한국시간) "황선우를 '2022 올해의 아시아 남자 수영 선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황선우가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면 "올해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두 개의 메달을 따며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황선우는 올해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2 FINA 롱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47의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고 은메달을 땀다.

황선우의 메달은 롱코스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종목에서 한국 선수로는 2011년 중국 상하이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33) 이후 11년 만에 수확한 메달이었다.

자유형 200m만 놓고 보면 2007년 호주 멜버른 대회 때 박태환이 쟁긴 동메달을 넘어선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스윙스왐은 이제 한국의 남자 자유형 200m 역대 기록 중 상위 10위 안에 황선우의 것이 4개, 박태환의 것이 6개 들어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전 기록 보유자이자 한국 수영에서 유일한 올림픽 메달리스트(금1, 은3개)인 박태환과 황선우의 시대가 겹쳐 가고 있음에 주목했다.



황선우

황선우의 거침없는 레이스는 쇼트코스에서도 이어졌다. 황선우는 이달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022 FINA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39초72의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고 대회 2연패에도 성공했다. 황선우의 기록은 이 대회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의 첫 영자로 나선 자신이 작성한 종전 아시아 기록(1분40초99)을 이틀 만에 1초27이나 단축한 것이었다. /연합뉴스

# 세계가 인정한다



# 우상혁 '2022년 최정상급 점퍼'

## 세계육상연맹 "높이뛰기 판세 주도"

세계육상연맹이 우상혁을 남자 높이뛰기 판세를 주도한 '최정상급 점퍼'로 뽑았다.

세계육상연맹은 최근 홈페이지에 종목별 2022년 리뷰를 게재하고 있다.

28일에는 도약 종목(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한 시즌을 돌아봤다.

세계육상연맹은 "우상혁은 후스토페체에서 지난해 자신 도쿄올림픽에서 작성한 한국 기록 2m35를 1cm 넘어선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실내 경기 아시아 역대 2위(1위는 바심의 2m41) 기록이기도 하다"며 "베오그라드에서는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실내선수권 우승을 차지했다"고 설명을 보냈다.

우상혁은 1월 31일 체코 네흐비즈디 실내 대회(2m23·5위)에서 2022시즌을 시작해 2월 6일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대회에서 2m36의 한국 신기록(우승)을 세웠다.

2월 16일 슬로바키아 반스카 비스트리차(2m35)에서도 정상에 오르더니, 3월 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세계실내육상선수권(2m34)에서 우승했다.

실내 시즌을 거른 바심은 실외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부터 필드에 섰다. 이후 남자 높이뛰기 구도는 '현역 최강' 바심과 '라이징 스타' 우상혁의 2파전이 됐다.

세계육상연맹은 "우상혁과 바심은 2022년 남자 높이뛰기 스타였다. 우상혁이 실내 경기에서 두각을 드러내자, 바심이 실외 경기에서 현역 최강의 위용을 뽐냈다"고 총평했다.



우상혁

이어 우상혁의 화려했던 '타임 라인'을 소개했다.

우상혁은 5월 14일 '바심의 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2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에서 2m33을 넘어 2m30을 뚫고 바심을 제치고 우승했다.

올해 육상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실외 세계선수권에서는 바심이 우상혁을 꺾었다. 7월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바심은 2m37을 넘어 대회 3연패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 광주, 알바니아 출신 '특급 윙어' 아사니 영입

광주FC가 알바니아 출신의 '특급 윙어' 아사니(27·Jasir Asani·사진)를 영입했다.

새로 광주에 가세한 아사니는 175cm·68kg의 날렵한 신체조건을 갖췄으며 빠른 스피드와 함께 드리블 돌파, 공간 침투가 장점이면서 공격수다.

강력한 왼발킥을 보유한 아사니는 뛰어난 센스, 침착한 마무리 등 다재다능함을 갖췄으며 세컨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할 수 있다.

2013~2014시즌 마케도니아 최상위 리그인 FK vardar skopje에서 프로에 데뷔한 그는 이후 2014~2015시즌, 2015~2016시즌 팀의 리그 2연패에 역할을 했다. 북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 연령별 대표팀(U-19, U-21)에 소집되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마케도니아에서 5시즌을 보낸 아사니는 2017~2018시즌 KF Partiznj(알바니아 1부)로 이적해 이듬해 리그 우승과 함께 2019~2020시즌 컵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아사니는 "아시아에서의 첫 도전을 1부리그에서 새로운 도약을 노리는 광주에서 시작하게 돼 기쁘다. 나를 영입한 광주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력으로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며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AIK(스웨덴 1부)와 Kisvarda FC(헝가리 1부)에서 뛰던 아사니는 광주를 통해 아시아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게 됐다.

# 전남, 전승민 완전영입·임찬울과는 재계약

전남드래곤즈가 전승민·임찬울과 동행을 이어간다.

전남이 올 시즌 34경기에 나와 3득점 1도움을 기록한 전승민을 성남FC에서 완전 영입했다. 무릎 부상에서 회복해 29경기에서 5득점 5도움을 올린 임찬울과는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전승민은 전남이 용인대 시절부터 눈여겨본 자원으로 올 시즌 U22선수로 낙점돼 성남에서 임대 영입했다. 전승민은 2022 AFC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젊은 패기와 볼 배급 능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전남에 완전하게 합류한 전승민은 "입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임찬울은 무릎부상으로 1년 6개월이라는 긴 재활의 시간을 보냈지만, 복귀에 성공해 올 시즌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이루며 전남의 측면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전승민



임찬울

임찬울은 이번 재계약으로 전남에서 4번째 시즌을 맞게 됐다.

임찬울은 "오랜 기간 기다려주셨고 내년에도 전남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2023시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체육인의 밤' 행사 '2022년 전남체육인의 밤' 행사가 최근 목포 신한비치호텔에서 열렸다. 행사는 전남체육진흥유공자 시상,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 득점 제조기 전성현 '9게임 연속 20점 ↑'

## 서장훈 이후 20년만의 기록

프로농구 고양 캐롯의 슈터 전성현(사진)은 진정팀 안양 KGC인삼공사와 세 번째 맞대결에서도 웃지 못했다.

지난 27일 박지훈의 극적인 역전 골에 82-84로 아쉬운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렇지만 이 경기에서 전성현은 프로농구에서 드문 세 가지 기록을 세웠다.

'국보급 센터' 서장훈 이후 20년 만에 9경기 연속 20득점 이상 올린 국내 선수가 됐다.

이 기록은 프로농구에서도 달성한 선수가 몇 없다. 프로농구 25년간 6명뿐이다.

2002년 2~3월 서장훈이 서울 SK 소속으로 이 기록을 냈다. 서장훈은 프로농구 초창기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2경기, 18경기, 17경기, 14경기, 11경기, 10경기, 9경기 연속으로 20점 이상을 올리는 등 '밥 먹듯' 20점을 넣었다.

'최고 슈터'였던 문경은 KBL 본부장도 프로농



구 원년인 1997~1998년 12경기, 다음 시즌 9경기 연속으로 20점 이상을 올렸다.

그러나 수비 전술이 발전하고, 외국인 선수의 존재가 높아진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런 토종 득점원들의 기록은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2009년 초 주희정 고려대 감독이 안양 KT&G(현 KGC인삼공사) 소속으로 뛰며 8경기는 연속으로 20점 이상을 올린 적이 있지만, 이마저도 벌써 13년 전이다.

설상가상으로 3점 라인인 6.75m로 50cm 떨어

진 2009~2010시즌부터는 8경기는커녕 7경기 연속 20점 이상을 넣은 국내 선수도 없었다.

이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손쉽게 슛을 성공하는 전성현은 올 시즌 기록 제조기다.

전성현은 전남 인삼공사전에서 3점 5개를 쏘아 올려 개막 후 역대 최단기간인 25경기 만에 세 자릿수 3점(102개)을 성공하는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2000~2001시즌 조 전 감독이 26경기에서 103개를 터뜨린 게 기존 최단 기록이었다.

3점 개수만 대단한 게 아니다. 전성현은 3점 성공률도 44%다. 매 경기 9개를 넘게 던져 4개를 넘게 쏘아 넣는다.

프로농구 최다 연속 경기 3점 성공 기록의 주인공도 전성현이다. 현재 66경기 연속으로 3점을 넣은 전성현은 올 시즌 계속 기록을 경신 중이다.

25경기에서 102개의 3점을 넣은 전성현은 산술적으로 올 시즌 220개의 3점을 성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프로농구에서 한 시즌 200개가 넘는 3점을 넣은 선수는 없었다.

아울러 전성현이 평균 득점 20점을 넘긴 채 시즌을 마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현재 전성현은 경기당 20.1점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만도역의 벼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아바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2관	아바타: 물의 길
3관	아바타: 물의 길, 올빼미
4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5관	젠틀맨
6관	아바타: 물의 길, 올빼미
9관	영웅
7관 씨네카를	영웅, 신비파트 극장판 차원도깨비와 7개의 세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관 씨네카를	젠틀맨,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 이러스를 없애줘!,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 2: 윈디스타 콘서트 대작전

2023 신년음악회

GWANGJU SYMPHONY ORCHESTRA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70회 정기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1-17(화)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